



창립 10주년 기념 리셉션 장

## CRO제휴 통한 GLP · GEP기준의 국제공인시험서비스 제공

### 2. 9. 창립 10주년 기념 리셉션, 각계 인사 100여명 초청 성황리 개최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대표이사 박지성)는 1999년 설립되어 2000년 9월 국내 민간연구소 최초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화학농약, 미생물농약, 생화학농약에 대한 농약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 이후 2009년 국제공인 GLP포장시험자격 이수와 농약잔류성 시험연구기관 지정, 2010년에는 연구개발 서비스업 인증을 받았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한국식물환경연구소는 지난 2월 9일 서울 역삼동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호텔에서 「10년의 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란 주제로 국내농업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언론, 유럽 및 아시아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하여 창립 기념 리셉션을 성대히 개최했다.



### 국제적 공인 농업기술연구소로 사업영역 확대

한국식물환경연구소는 국가공인농업기술전문 시험 연구 기관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으로 농약품목등록시험, 농약잔류분석시험, 무인헬기방제시험 등을 수행하며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서비스와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이다. 풍부한 국내외 현장경험을 토대로 국가 연구과제 및 국내외 관련기업과의 연구 용역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효과의 농자재를 개발하며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잔류농약분석 및 평가, 기술지도, 안전농산물인증사업 외에도 폭넓은 현지 마케팅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제적 공인 농업기술연구소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연구시설로는 경기도 수원 본사에서는 행정 지원과 시험업무 총괄 및 고객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수원 중앙연구소에서는 농약잔류성 분석시험을, 수원 시험장에서는 온실 시험, 신약제 포장 스크리닝 시험 및 비료 비해 시험을, 파주시시험장에서는 화훼류 산립 병해충 시험, 신약제 스크리닝 시험 및 잔디 및 과수 약해시험을, 성환시험장에서는 과수 시험, 수확 후 저장성 시험 및 생장 조정제 효과시험을, 당진시험



장에서는 수도용 병,충,잡초 시험, 무인항공 헬기 방제시험 및 논 제초제 지역적응성시험을 하는 등 본사 및 연구소 이외 4곳의 시험장에서 총 16명의 임직원 및 연구원이 양질의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 시험데이터 ARM사용 및 데이터 전산화 실시

한국식물환경연구소의 설립자인 박지성 대표이사는 타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에 대해 “첫째는 GLP 시험과 QA교육 이수 연구원 보유와, 둘째는 모든 포장 시험을 GLP표준 실험장비인 CO2 sprayer를 이용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농업시험 데이터 수집을 국제공인프로그램인 ARM(Agriculture Research Manager)을 사용하여 모든 시험 데이터를 전산화했으며, 넷째로는 설립 초기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시험 결과를 인터넷으로 24시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고객



무인헬기항공방제 현장



무인헬기방제 현장 농업과학기술원과원장 방문

서비스 경쟁시대에 시험의뢰사에게 최상의 국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한국식물환경연구소는 SynTech Research(Global CRO)와 제휴를 통한 GLP/GEP 기준의 국제 공인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ynTech Research는 50여개국에 80여개 연구소를 운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network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시험을 GLP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2003년 7월 제1호를 시작한 국내 최초 인터넷 농업정보 웹진인 「알앤디통신(Altong)」은 매달 격주로 2회 발행, 2011년 2월 현재 150호를 발간 국내외 4,000여명의 독자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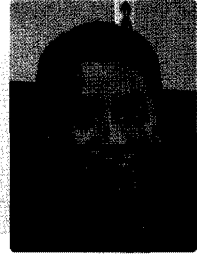
또 박지성 대표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 생성을 위해 시험의뢰사의 협조사항에 대해 “없습니다” 단언하고 “시험의뢰사는 시료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 외의 시험에 대한 모든 퀄리티는 연구기관의 몫입니다”라며 정확도 높은 분석 데이터 자료 도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에 연구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는 사람은 종족이 틀립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연구원으로서의 집중도와 프라이드, 다른사람들 보다 하나 이상을 더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라며 박지성 대표는 평상시 연구원들을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켜 지성과 감성을 겸비할수 있도록 인력양성 투자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보였다.

끝으로 올해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년초 신입사원 5명을 채용하여 시험사업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내실을 다지는 한해로 삼으려 합니다”라며 “고품질의 농약개발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재배현장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효율적인 제품사용설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한국식물환경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박지성 대표에게서 도전의 10년을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더욱더 전진하고자, 새로운 희망의 꿈을 설계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었다. ㉞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대표이사

## 시험보고서 속히 전산화 이뤄져야



-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셨는데 그동안의 회고와 가장 큰 연구성과로는 무엇을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2000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민간연구소 인증을 받으신 올해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 설립 초창기 3여년동안은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던 연구외부용역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결실들이 이제는 서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 CRO시스템을 소개하여 현재 국내 6개 정도의 민간연구소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과 공공시험의 민간연구소 수행에 밑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6년 SynTech Research(Global CRO)와의 협약을 통해 미국, 스페인, 영국, 칠레 등 14개국에 GLP·GEP 기준의 공인시험 데이터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유일의 무인헬기 시험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시험의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요?

자체 무인헬기가 없었던 2010년 이전에는 무인헬기사로부터 헬기를 대여하여 약제 살포를 실시했으나, 이 과정에서 약제들이 대량 살포되고 대여사의 일정에 의해 약제처리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시험연구기관은 최상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데이터의 신뢰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헬기 대여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데이터를 수행할 수 없어 과감히 무인헬기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연구원들이 직접 무인헬기를 작동하며 국내 무인헬기 항공방제 시험 전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농약 시험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농약시험기준과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일본은 한 약제를 등록 시키는데 보통 5번의 시험을 실시하여 그중 3개 시험만 성공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 갯수를 늘리고 그 중 유효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등록에 사용하는 것은 시험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신뢰성 향상에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구소 정도관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민간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제를 실시하고, 적절치 못한 평가를 받았다면 그만큼의 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농업시험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험 보고서의 서류작성 제출이 하루 속히 데이터 전산화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